

저 녀 눈

박 용 래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씨는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말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번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박 용래의 시전집 『먼바다』(창작과 비평사)에 실려 있는 이 시는 그의 대표작으로 수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현대시학사 제정 제1회 작품상을 받은 것은 유명하다.

평론가 유 중호 교수는 일찌기 ‘詩와 土着語志向’이라는 제목의 논저로 우리 시의 자기정의론 한 바 있다. 토착적 우리말 시어를 사용할 경우 보다 폭넓은 예술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논리적 추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시가, 문학이 우리말을 갖고 닦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학 생

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책임이 어디 또 있겠는가.

이 시는 시적 공간의 반복과 병렬에 의해 생성되는 운율을 그 기저로 삼고 있으며, 또한 전편이 순수한 우리말로 되어 있다. 그 흔한 한자어조차 전혀 쓰이지 않은 이 시에서 우리는 전통적 서정의 한 극치를 읽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시일수록, 감동을 주는 시일수록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유포되는 삶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글 : 이 은 봉 (詩人)